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자기불성이 있다는 걸 무조건 믿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거기 놓으세요

**우**리는 항상 지구라는 주머니 속에서 같은 한자리를 하면서도 또 같은 한자리를 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만나고 할나 할나 헤어졌다가 또 모이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 우리가 또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항상 같이 한답니다. 우리가 혼자는 못 살아요. 물질계도 혼자는 못 살지만 정신계도 혼자는 못 살아요. 진리가 다 그러하죠.

내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한테 '자기 주처에 물룩 다 놓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더군요. 그랬니까. 그러니 이미 나에게 주처가 있고 그 주처 속에는 바로 내 불성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안되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놈이 하게끔 하고 다니니까요. 그게 바로 선장이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그 선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뭐든지 기초가 잘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오로지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 한군데다 물룩 놓는 그 작업이 오로지야 됩니다. 없는 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게 될 때, 물룩 놓아서 알게 될 때 그때에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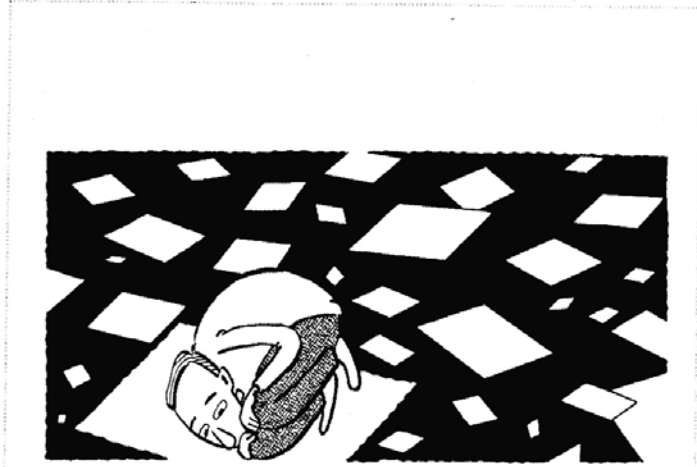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선, 좌선, 입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선은 이미 그대로 생활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게 생활 속에서 다 집어먹고 가는 겁니다. 지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 좌선할 때는 그게 돌아가고 좌선을 안 할 때는 안 돌아가나? 불교는 진리입니다.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집어삼키려면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선을 그냥 공심으로, 즉 말하자면 공법으로 집어먹습니다. 그 건 무슨 소리냐 하면 좌선이다 좌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걸 따로 두지 말란 얘깁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요만큼도 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참선을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것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인간이 수레바퀴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법바퀴로 굴리느냐 하는 겁니다. 수레처럼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걸 깨어 잡고선 공법의 바퀴로 굴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법으로 다 집어먹었다 한다면 또 연기의 무의 법이 나옵니다. 연기법이라고 하지만 연기의 무의 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그냥 평소에 하시듯 그대로 놓고 가면 됩니다. 그것도 건너뛰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계단 밟고 한 계단 밟고 이렇게 집어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 계단이면 열 계단, 12계단이면 연기법의 12계단을 하나로 한참나로 뛰어넘어 줍니다. 뛰어넘어 줄 수 없는 겁니다. 손색이 없는 깨달은 마음은 체가 없어 무량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 적멸(寂滅)이 나옵니다. 공(空)이 나오죠. 공!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오셨든 가난하든 못났든 잘났든 간에 놓는 과정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적멸이 나와도 적멸까지도 쫓아줘야 되고 공이 나왔을 때는 공까지도 쫓아줘야 되고. 여기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어제도 없고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느냐. 항상 말씀해 드렸지만 고정됨이 없이 참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 한발짝 없어지고 또 한발짝 없어지는 도리와 같이 우리 생활이 전체가 그렇다는 얘깁니다. 고정된 게 한군데 바라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것 보면 저걸 봐야 하고 이것 들으면 저걸 들어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사람 만나야 하고, 이 길도 걸어야 하고 저 길도 걸어야 하고, 갔다 하면 와야 하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드렸죠. 고정됨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그래서 삼세가 공했다구요. 삼세가 공한 반면에 자기조차도 공했다구요. 고정됨이 없다고 한 자체가 바로 나도 공하고 전체가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있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같이 포용된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한다고 할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고정된 게 없이 참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몸속에 생명이 많이 들어있는데 목이 말라서 내가 물 한 컵을 마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신 거겠습니까. 누가 마신 거겠습니까? 누가 마셨다고 할 수가 없죠. 개별적으로, 그렇죠? 포괄적이며 공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세워서 내가 했다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이해가 가게 얘길 해 드려야 놓고 여러분이 맡기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연인끼리 끝까지 들어가다 보니 까 애인과 자기가 틀어지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기 모습이 없어야만 둘이 아니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뭐든 게 알았어요. 그 사관네들은 컴퓨터만 잘 했지 부처님 법을 몰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몸대 태우고 모습을 없애고서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공한 도리를 안다면 내세울 것도 없고 지금 불가에서 말하는 소리도 본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

16면으로 계속

### 집착·욕심·습을 놓아야 돌아온 도리 알게 됩니다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해왔죠. 그런데 열번 스무번 백번을 해도 그게 감지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말 되었고 또 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해 야 될 것은 어떤 것을 믿고 놓아야 되는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이게 있고? 한다면 벌써 일단은 늦습니다. 길을 가기가 늦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낫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무조건 믿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즉 자기 불성이 없다면 움직여 줄 수도 없고 형성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불중지가 없다면 어떻게 형성이 됐

아닌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온갖 집착과 욕심과 습을 놓는 작업을 합니다. 나를 찾는 반면에 그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욕심과 집착과 온갖 습을 다 놓고 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따르 저것 따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면 '아하, 참 여여하구나.' 하는 걸 편안하게 알게 됩니다.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 그걸 떠나서 말합니다. '참 편안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 '생각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 '이걸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이나 한생각이나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뚜렷하고 여여할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뚜렷하고 다가온다고 해서 뚜렷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하고 다 놓아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으니까 양면을 다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면을 다 놓게 되면 '아, 이게 모두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가 모두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 세상 만사 살아나가는 게 다 내가 사람에게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다 갖추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스스로서 편안하고 여여하게 들고 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들고 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데 합치면 공법으로 들어갑니다. 공심으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마음은 체가 없다 이런 말을 항상 해드렸죠. 여기서 미국을 한발로 밟아도 안 되고 한발로 한참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 속을 한참나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을 한참나에 뜰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멀고 가까운 게 따로 없더라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 공심으로 다 집어먹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말합니다. 그럼 사선(四禪)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과정이요, 사선이라고 하는 그 도리를 경전에는 따로 정의를 해 놔지만 나는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빨리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선을 그냥 행선, 와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 글과 백지를 함께 볼 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넌다면 뱃목을 버려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의 뱃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 뱃목들은 강이 낡은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 손짓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면 뱃목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뱃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뱃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 마음이 나의 뱃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뱃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창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다 죽는 별과 같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글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는 법이고, 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들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일생을 세는 것과 같고 경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일생과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 주셨다.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

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금강경을 달달 외었다 해도 무위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지 부처님의 참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율·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실명인 것이다.

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 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 닦아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을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둘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르게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



니가 설법도 하고 열매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 법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작에 유용이 되고 있는데 무명자는 방법을 고집하는 경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덧붙여 짐이 되게 해서 안될 것이다.

로켓을 타고 날으는 세상에 착도 없어서 걸어간다면 그때의 그 걸이간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니다. 병풍 둘러치듯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팔만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즉성이 되어야 하고 즉행이 되어야만 즉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뮬레이션 길잡이가 될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좌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지지 못한다면 경전 별래밖에 될 게 없다.

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의 덧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버려 볼 수는 없다. 흔히들 결집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불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흥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겁을 거처도 벗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해야 한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협찬: 주인공